



버즘나무 탄저병 (Sycamore anthracnose)

버즘나무는 도시공해에 강하고 공기 정화능력이 크기 때문에 가로수나 공원수로 많이 심어졌으며, 목재는 희고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좋기 때문에 일반용재, 가구재, 펄프재로 사용되고 있다. 버즘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병은 탄저병으로써 이 병을 소개한다.



김 경 희 박사/연구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1. 발생생태 및 피해

버즘나무 탄저병은 1987년 부산, 사천 등 남부지방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1992년에는 서울, 인천 등 중부지방까지도 확산되어 문제가 되었던 병이다. 어린잎과 가지가 말라 죽으면서 도시 녹지공간의 경관을 해치는 등 커다란 피해를 주며, 심한 경우에는 수관의 70% 이상이 손실되므로 수관전체가 영성하게 된다. 따뜻한 겨울에는 병원균의 활동이 일찍 시작하고, 이른 봄 새로운 잎이 나온 후 갑자기 약 12~13℃의 저온이 약 2주간 지속되면 병의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균의 감염과정에서 강우량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나 병의 확산에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버즘나무 탄저병 피해

2. 병원균

Apiognomonina veneta 라는 병원곰팡이에 의하여 발생하고, 가지의 병든 부위와 병든 낙엽에서 균사와 미성숙 포자덩이로 월동하여 이듬해에 감염원이 된다. 온도조건이 맞으면 이른 봄, 잎자루를 통하여 나무의 조직 속



잎에 발생한 탄저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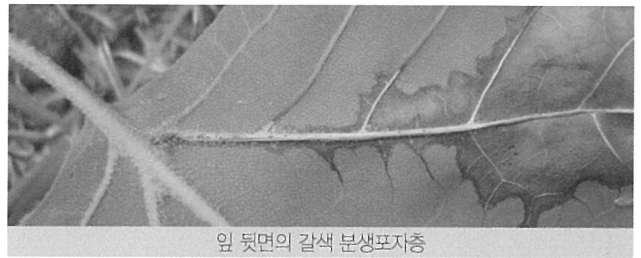


가지 및 새싹에 발생한 탄저병

으로 침입하게 되며, 가지의 분지점 사이의 잎은 병원균의 침입에 쉽게 노출되어 심하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병징 및 표징

버즘나무 탄저병의 피해는 2번 나타난다. 이른 봄, 눈과 가지가 죽는 피해와 잎이 커지고 난 후 잎에 불규칙한 갈색 반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첫 번째의 피해는 눈이 싹트기 전에 눈을 죽이기도 하지만 돌아난 싹과 어린잎이 갑자기 죽는 피해로 가끔 서리피해와 혼동



잎 뒷면의 갈색 분생포자층

되기도 한다. 두 번째의 피해는 크게 자란 잎의 잎맥을 따라 갈색의 큰 반점이 생겨 잎이 뒤틀리며, 말라 죽는 증상이다.

그리고 첫 번째의 피해에서는 굵은 가지 및 어린 가지도 침입 받아 가지가 말라죽게 되는 피해도 같이 발생하여 움푹 꺼진 꺾임증상을 나타낸다. 죽은 가지에는 짙은 갈색의 분생포자층(균덩어리)이 나타나며 습기가 많을 때는 크림색의 포자덩어리가 터져 나온다. 병든 잎에서는 잎맥주변을 따라 짙은 갈색 내지 옅은 갈색의 병원균의 분생포자층이 나타난다.

4. 방제법

이 병에 의해 나무가 죽는 경우는 드물지만 녹음수와 관상수의 경우에는 병이 감소되도록 관리한다.

- 심한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하여 전염원을 없애준다.
- 병든 가지는 잘라서 소각시키거나 묻어준다.
- 병에 걸린 나무는 관수와 시비를 철저히 하여 수세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른 봄, 눈이 트기 시작할 때와 2차 성장기에 탄저병 약제를 나무전체에 2~4회 뿌려준다. 🌳